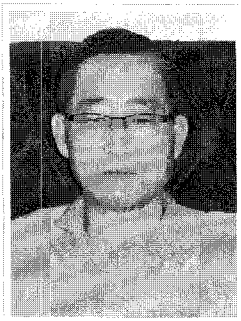


# “Fill Her Up Please!”

서경태

국제원자력기구(IAEA) 핵물질보장조치 사찰관



“Fill Her Up Please!”는 일반적으로 “자동차에 기름을 가득 채워 주세요.”라는 뜻으로 쓰이는 영어 관용어이다. 무생물인 자동차나 비행기 또는 선박 등을 지칭하면서 ‘Her’라는 여성을 가리키는 인칭대명사를 사용하다보니 영어 시험에도 가끔씩 출제가 되고, 대부분 영어 회화책에는 단골로 인용되고 있다.

과거 ‘007 시리즈’ 중 로저 무어가 007로 출연한 영화 중의 한 편에서 주인공이 조그만 비행기를 이용하여 공중전도 벌이고 미사일도 피하고 하다가 성공적으로 임무를 마친 후 지상에 착륙하여 주유소에 들러 “Fill Her Up Please!”하는 장면은 이 관용구를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도록 했다.

## 주유원이 없는 유럽의 주유소

작년에 한동안 한국 사회를 시끄럽게 한 사건이 하나 있었다. 바로 주유소에서 주유기를 조작하여 실제량보다 적게 주유를 하면서 기름값을 속여 받아 챙긴 사건이었다.

기름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아, 차량을 운행하는 서민들이 자동차에 기름을 넣을 때 주머니 사정을 생각하여 절반만 넣을까? 아니면 엇그제보다 오늘 기름값이 싸니 오늘 가득 채울까? 아니면 근처 도시에 있는 주유소가 기름값이 싸다는데 그곳에 가서 넣을까? 그런데 그곳까

한양대 원자력공학과 졸업  
한국전력공사 근무(1984~1994)  
IAEA 근무(1995~)

지 다녀오는데 기름이 얼마나 들까? 등등 머리를 쥐어짜며 어떻게 하면 기름을 싸게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던 차에 멀쩡히 보는 눈 앞에서 주유기를 조작하여 넣지도 않은 기름값을 받았으니 사람들을 화나게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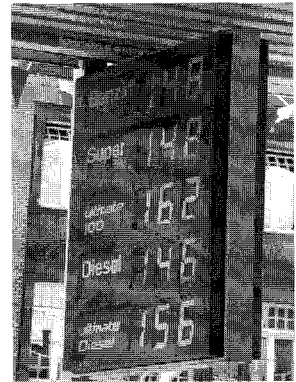
그런데 필자는 이 사건을 전해 들으면서 별로 실감이 나지 않았다. 왜냐하면 유럽에서는 거의 대부분 주유소에서 운전자가 직접 기름을 주유하기 때문이다. 주유소에서 주유원이 기름을 넣어 주는 것에 익숙해 있던 필자도 처음에는 무척 고생을 했다. 생전 처음 기름을 넣는데 주유기를 어떻게 조작하는지 몰랐을 뿐만 아니라 혹시 주유기를 잘못 조작하여 주유기를 고장 내거나 기름이 탱크를 넘치지나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이었다.

또한 한동안은 주유기의 레버를 붙잡고 기름이 탱크에 다 찰 때까지 기름을 넣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주유기를 꽂아 놓고 창문 유리를 닦거나 타이어 압력을 재는 등의 다른 일들을 하고 있었다. 필자는 사람들이 기름을 다 넣고 주유기를 꽂아 둔 채로 다른 일들을 하는 줄로 착각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주유기에 고리가 있어 주유를 하는 동안에 주유기를 계속 잡고 있을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필자도 이제는 10유로, 20유로 등 끝자리가 딱 떨어지게 넣을 수도 있고 주유기를 꽂아놓고 주유를 하면서 유리도 닦게 되었으며 또한 디젤 자동차에 휘발유를 잘못 넣었다는 소리를 들으며 혀를 찰 수도 있게 되었다. 디젤과 휘발유는 주유기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휘발유 차에는 디젤을 넣을 수가 없지만 디젤 차에는 실수로 휘발유를 넣을 수가 있다.

어쨌든 인건비가 비싼 유럽에서는 주유소에서 주유원을 고용하여 기름을 넣어 주다가는 인건비와 보험등 기타 부대 비용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유원이 있는 곳이 매우 드문 것이다. 또 무인 주유소도 꽤 있다. 주유소에 사람이 없는 것이다. 이런 곳에서는 신용카드를 미리 입력시킨 후에 기름을 넣거나, 아니면 필요한 만큼 돈을 먼저 넣은 후에 기름을 넣을 수 있다.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기름을 넣을 때는 그나마 가득 넣을 수가 있는데 돈을 먼저 지불한 후 기름을 넣어야 할 때는 난감할 때가 한 두 번이 아니다. 내 차의 기름 탱크 용량을 모르기 때문에 기름 탱크에 기름을 얼마나 더 넣을 수 있는지도 모르고 기름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많은 돈을 넣었다가 그 돈보다 적게 기름이 들어갔을 때 과연 잔돈이 나올 것인가? 만약 잔돈이 나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잔돈을 받아낼 것인가? 등등 답답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독일의 한 주유소에 설치되어 있는 유류가격표

**인건비가 비싼 유럽에서는 주유소에서 주유원을 고용하여 기름을 넣어 주다가는 인건비와 보험등 기타 부대 비용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유원이 있는 곳이 매우 드물다.**



한국의 주유소 풍경

나름대로 계산을 하여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금액을 넣은 후에 기름을 넣어도 기름 탱크에 기름이 다 차지 않은 경우도 있고, 다른 나라에 갔을 때에는 환율 계산도 복잡해 절만도 차지 않아 기름을 서너 번씩 넣은 경우도 있다. 이리다 보니 기름 넣을 때를 대비하여 작은 액수의 지폐를 미리 준비하기도 하고 사람이 있는 주유소를 미리 알아놓기도 한다.

**주유소에서 주유원이 대기하고 있다가 춤을 주면서 손님을 끌어들이고, 차량이 들어서면 코가 땅에 닿도록 절을 하고, 기름을 넣어 주고, 생수나 휴지 등 선물도 주고, 거기에다 점수까지 없애줘 나중에 점수가 쌓이면 값나가는 물건까지도 받을 수 있는 곳은 아마도 한국 밖에는 없는 것 같다.**

### 한국에서 주유받는 행복

주유소에서 주유원이 대기하고 있다가 춤을 추면서 손님을 끌어들이고, 차량이 들어서면 코가 땅에 닿도록 절을 하고, 기름을 넣어 주고, 생수나 휴지 등 선물도 주고, 거기에다 점수까지 없애줘 나중에 점수가 쌓이면 값나가는 물건까지도 받을 수 있는 곳은 아마도 한국밖에는 없는 것 같다.

한국과 유럽의 주유소를 비교해 보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든다. 한국에서는 기름값에 얼마나 마진이 많기에 주유원을 고용하고 선물까지 줄까 하는 생각이 드는가 하면, 유럽에서 주유소를 하나 차리면 금세 부자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물론 세금을 내는 것에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한국의 주유소에서 서비싱하는 것들이 유럽의 주유소에는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 비용들이 모두 주유소 업주의 주머니에 남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 다른 면에서는 한국의 인건비가 얼마나 싸면 저런 서비스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유럽에서는 사람의 손을 거치는 것은 무조건 비싸다. 같은 물건이라도 기계로 처리하는 것과 사람이 직접 처리하는 것은 보통 두 배 이상 비싸다. 은행에도 여러 가지 조건의 구좌가 있는데, 오직 현금카드만을 사용하여 출금만 하는 구좌는 카드 발급비가 없고 수수료도 없다(오스트리아에서는 수료를 받는 구좌에서 현금카드가 손상되어 재발급 받을 때에도 카드 발급비를 받는다). 그런데 이 구좌를 통해서 송금이나 대금 지불 등을 하게 되면 수수료가 엄청 비싸다. 은행원의 손을 거쳤기 때문이다.

조금은 황당하다는 생각이 들만한 다른 예도 있다. 필자는 이곳 오스트리아에서 교통 사고를 여러 번 당했다. 참고로 오스트리아가 유럽에서 교통 사고가 제일 많은 곳이다. 운전 험하게 하기로는 이탈리아 사람들을 따라갈 수가 없는 데도(동유럽은 제외하고) 이탈리아는 사고율이 오스트리아보다 낮다. 빨간 신

호등에서 있는 차를 뒤에서부터 추돌시킬 때는 오스트리아 사람들이 체정신이 아닌 상태로 운전을 한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오스트리아 사람인 프로이트가 정신분석학으로 세계적인 석학이 되었을지도 모른다.

어쨌든 사고가 나서 경찰이 오고 앰블런스가 오는 인사 사고가 나면 나중에 경찰에서 출두 요청서가 오고 경찰서에 가서 진술을 해야 한다. 피해자인데도 가서 진술을 해야 한다(한국에서는 사고를 내지도 당해본 적도 없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요사이 이렇게 하는지는 모르겠다).

어쨌든 병원에서 이상 없다는 진단도 받고 부쉬진 차도 고치고 경찰서에 가서 진술도 마치고 정상적인 생활에 익숙해질 즈음 보험 회사에서 편지가 도착한다. 이른바 사고 명세서이다. 물론 피해자인 필자가 지불할 비용은 없지만, 그 내역을 보면 병원비, 차량 수리비 등 이해가 되는 내용 외에 경찰에게 지불하는 비용이 있다. 이를테면 사고가 나지 않았으면 편안히 경찰서에서 책상을 지키고 있을 경찰이 사고로 인해 출동을 하고 조서를 작성하는 등 일상 업무외 추가 업무(?)를 했기 때문에 그 비용을 청구하는 것이다. 일면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국가에서 월급을 받는 경찰이 사고 처리를 했다고 비용 청구를 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

어쨌든 한국의 주유소에서는 운전자들이 기름을 넣으면서 최고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이를 위해서 주유소 업체에서는 주유원을 고용하기 때문에 일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 대한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작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안 좋다고 한다. 경제가 안 좋고 기름값도 비싸니 자동차도 안 팔린다고 한다. 자동차가 줄어드니 기름도 잘 안 팔릴 거라는 예상을 할 수가 있다. 그러면 주유소에서도 비용 절감을 위해 유럽과 같이 주유원들이 사라지거나 않을까 걱정된다.

하루빨리 경제가 회복되어 주유소에서 모든 사람들이 기름값 걱정없이, “가득 채워주세요!(Fill Her Up Please!)”라고 얘기하면서 주유원들에게 고맙다고 톱도 주고 주유원들은 운전자에게 “감사합니다. 오늘도 안전 운행 하세요!” 하는 넉넉한 모습을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 ☸

하루빨리 경제가 회복되어 주유소에서 모든 사람들이 기름값 걱정없이, “가득 채워주세요!(Fill Her Up Please!)”라고 얘기하면서 주유원들에게 고맙다고 톱도 주고 주유원들은 운전자에게 “감사합니다. 오늘도 안전 운행 하세요!” 하는 넉넉한 모습을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